

稼軒詞 中の 歸隱思想**

林 承 杯* 1)

〈 目 次 〉

- | | |
|----------------|------------------|
| I. 緒 言 | III. 稼軒詞 中の 歸隱思想 |
| II. 歸隱思想의 근원 | 1. 積極적 의미의 귀은사상 |
| 1. 政治的 挫折 | 2. 소극적 의미의 귀은사상 |
| 2. 理想과 現實의 갈등 | IV. 結 語 |
| 3. 陶淵明과 莊子의 영향 | |

I. 緒 言

일반적으로 稼軒 辛棄疾의 詞가 후세에 의해 높이 평가되고 연구되어 지는 것은 그의 작품 속에 시대를 걱정하고 國事를 염려하는 憂國衷情의 愛國의 情緒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歷代 詞家들은 그를 蘇軾과 더불어 宋代 호방파의 대표 혹은 남송의 대표적인 愛國詞人으로 부르며 그의 작품 중에서 증원회복을 열망하며 抗金의지를 표현한 작품, 자신의 壯志와 포부를 읊으며 시국을 걱정하는 작품, 혹은 그러한 壯志나 抱負를 펼치지

* 원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 이 논문은 1996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못하는 鬱憤과 悲哀를 표현한 작품 등 그의 영웅기개와 愛國思想이 잘 드러난 작품에 높은 평가와 아울러 중점적인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사상이 신기질의 일관되고 주된 사상임에 틀림없지만 신기질 思想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다.

신기질의 작품에 나타난 思想 중에서 愛國思想을 적극적인 면으로 본다면 소극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歸隱思想도 있다. 물론 신기질의 隱居는 본인이 은거생활을 동경하여 自意的으로 행한 은거가 아니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주위의 배척으로 理想과 抱負를 실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落職隱居하게 된 것이어서 때로는 은거생활에 대한 失意와 憂愁, 鬱憤과 不平, 그리고 懷才不遇의 感慨 등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자연 속에서 逍遙하며 은거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陶淵明을 흠모하고 그의 生活態度와 人生觀을 배우려 했고, 莊子의 영향을 받아 平靜한 마음으로 悠悠自適하고 無爲無愁한 생활태도를 견지하려 했다. 그래서 신기질 隱居時期의 많은 작품 속에서 陶淵明과 莊子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歸隱思想은 총체적으로 보면 소극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은거생활 중에 느끼는 失意와 悲哀, 울분과 고민, 懷才不遇의 감개 등을 표출한 적극적 의미의 귀은사상과 은거생활의 平靜自足한 심정을 읊거나 수려한 山水風景과 한적한 전원생활을 묘사한 소극적 의미의 귀은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귀은사상이 생성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알아 보고 은거생활 중에도 壯志를 이루지 못한 悔恨과 좌절감, 懷才不遇의 감개 등을 寄託과 諷刺를 통하여 표현한 적극적 귀은사상과 俗世를 피하고 자연 속에서 소요하며 平淡한 은거생활에 自足하는 소극적 귀은사상을 작품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歸隱思想의 근원

신기질 필생의 소원은 金에게 점령 당한 中原故土의 收復으로 그의 작품 곳곳에서 이와 같은 愛國壯志를 실현하기 위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南宋 朝廷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과 權奸들의 시기와 배척으로 탄핵을 받아 落職隱居하게 되었다. 비록 自意에 의한 은퇴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관직생활에서 벗어나 한가한 야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 많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는데,¹⁾ 신기질의 나이 42歲(淳熙 8年, 1181)에서 52歲(紹熙 2年, 1191)까지와 56歲(慶元 元年, 1195)에서 63歲(嘉泰 2年, 1202)까지 근 20년 동안이 바로 이 시기로, 그는 本意아닌 落職隱居의 충격과 상처를 자연과 더불어 작품창작을 하며 치유하려 했다. 그러나 원래 功名心과 愛國心에 불타는 신기질이 자연속에 은거하여 자연과 더불어 한적한 생활을 영위하며 소극적이라 할 수 있는 귀은 사상을 작품 속에서 드러낸다는 몇 가지의 動因이 있다.

1. 정치적 좌절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좌절은 신기질로 하여금 귀은사상이 촉발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紹興 31年(1161) 金의 完顏亮이 大軍을 이끌고 南송을 공격할 때 北方 漢人들이 각지에서 봉기하였는데, 신기질도 22세의 나이로 義兵에 가입하여 抗金鬪爭을 하다 이듬해인 紹興 32年에 南渡하여 약 18年間 각지의 지방관으로 관직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淳熙 8年(1181) 겨울, 臺臣 王藺의 무고로 탄핵을 받아 罷職되어 上饒의 帶湖에서 은거생활을 시작했고, 紹熙 3年(1191)에 약 3년여 동안 지방 관직에 다시 기용되었다가 慶元 元年(1195)에 다시 탄핵되어 鉛山 期思村의

1) 鄧廣銘箋注 《稼軒詞編年箋注》에 의하면 帶湖 隱居時(1182-1191年) 176首, 瓢泉 隱居時(1194-1202年) 173首, 作詞年度가 불분명하지만 帶湖·瓢泉 隱居時의 작품으로 추정한 100餘首를 창작함으로써 이 期間의 작품 數가 稼軒詞 전체 630餘首 중 4분의 3을 점하고 있음.

瓢泉에서 약 8년간의 은거생활을 하게 되어 모두 합하면 20년간의 은거생활을 한 셈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신기질은 지나온 경력이나 성격으로 보아 自意로 은퇴할 인물은 아니고 他意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은퇴하게 되었고, 또 20여년간의 지방관 생활도 그의 壯志를 자유롭게 펼치기에는 부족한 閑職이었는데, 41세의 한창 일할 나이에 이러한 억울한 落職隱居는 그 동안 가슴 속에 품어온 理想과 抱負를 실현할 수 없다는 심한 좌절감으로 심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충격과 고통을 자연 속에서 逍遙하며 양성한 創作活動으로 詩酒에 자신의 감정을 寄託하며 헤어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2. 理想과 現實의 갈등

암울한 사회현실로 인한 理想과 現實의 모순된 심정도 신기질의 마음 속에 귀은사상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기질은 南渡 후에 始終一貫 對金抗戰과 中原恢復을 주장하였으나 朝廷 權奸들의 거둬된 비방과 배척으로 자신의 雄志를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하자 암울한 현실 앞에서 결국은 官職生活에 대한 회의와 혐오를 느끼고 평화롭고 한적한 전원으로의 귀을 생각하게 된다.

淳熙 8年(1181), 신기질이 落職하기 직전에 지은 <沁園春·帶湖新居將成>(三徑初成)이 바로 이러한 심정을 잘 드러낸 전형적인 작품이다.

三徑初成，
鶴怨猿驚，
稼軒未來。
甚雲山自許，
平生意氣；
衣冠人笑，
抵死塵埃。

정원길 막 완성됐는데,
학과 원숭이 놀라 날뛰며 원망하네.
주인(가현)은 어찌 아직까지 오지 않느냐고.
자연에의 歸隱이
명생의 念願인양 자처했는데,
사람들은 비웃겠지.
결국은 더러운 먼지 속 같은 官場生活에 미련
남아 있다고.

意倦須還，	피곤하다 느껴지면 응당 돌아 가야지.
身閒責早，	심신이 한가한 것 이룰수록 좋을진데.
豈爲草蕘鱸鮓哉。	어찌 순채국과 농어회 때문이라?
秋江上，	가을 강에서.
看鶯弦雁避，	활시위 소리에 기러기 놀라 피하고.
駭浪船回。	성난파도에 급히 뱃머리 돌리는 것 보았기 때문이다.
東岡更葺茅齋。	동쪽 언덕에 초가서재를 짓고.
好都把軒窗臨水開。	門·窗은 모두 물가로 내야지.
要小舟行釣，	작은 배 타고 낚시 하려면.
先應種柳；	우선 물가에 버드나무 심고；
疎籬護竹，	대나무 숲은 성긴 울타리로 막아.
莫礙觀梅。	매화 觀賞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야지.
秋菊堪餐，	가을 국화 먹을 만하고.
春蘭可佩，	春蘭은 몸에 지닐 만하니.
留待先生手自栽。	기다렸다가 내손으로 직접 심게 남겨 놓으라 해야지.
沉吟久，	한참동안 깊이 생각해보나.
怕君恩未許，	황제의 윤허가 떨어질 것 같지 않아.
此意徘徊。 ²⁾	(귀은하려는) 이 마음 다시 망설여지네.

詞의 上片에서 官職生活의 피곤함을 언급하며 歸隱하려는 심정에 대해 표현했지만 「秋江上，看鶯弦雁避，駭浪船回」句에서 알 수 있듯이 귀은의 진정한 원인은 활시위 소리에 기러기 피하고 험한 파도에 뱃머리 돌리듯이 朝廷權奸들의 모함과 誹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말하고 있다. 下片에서는 새로운 거처에서의 계획을 세우면서 세상을 잊고 高雅한 생활과 清취를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마음을 드러내지만 詞의 마지막 「沉吟久，怕君恩未許，此意徘徊」句에서 아직 雄志를 펼쳐 보고 싶은 用世의 심정과 모든걸 잊고 한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歸隱의 생각으로 갈등하는 모순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2) 본고에서 인용하는 모든 신기질 詞作의 원문은 臺灣 華正書局에서 출판한 鄧廣銘선생의 《稼軒詞編年箋注》 1989年版에 의거한 것임.

3. 陶淵明과 莊子의 영향

政治적으로 혼란하고 社會矛盾이 첨예한 時代에는 老莊思想이 왕왕 知識人들의 自己保全 수단이 되고, 官職에서 罷職되어 歸隱한 大多數의 文士들은 젊어서 壯志를 품었으나 혼탁한 社會에서 뜻을 펼 수 없어 결연히 田園으로 은거한 陶淵明에 대해 더욱 더 이해하고 좋아하게 되는데, 조정은 腐敗墮落하고 權奸들이 횡행하여 충신들이 배척되고 탄압받는 南宋에서 도연명과 莊子思想이 추앙받는 것은 시대적 조류라 할 수 있다.

당시 직접 민족적 비극을 체험하였고 계속 金の 위협을 받고 있는 時代의 상황 下에서 南宋 朝廷의 安逸과 무기력에 극도의 불만을 가지고 中原故土 恢復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신기질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정으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主和派의 배척으로 자신의 雄心壯志를 실현 할 수 없는 정치적 현실에 직면하여 古代의 賢士 중에 동지적 입장의 도연명을 精神의 支柱로 삼아 은거생활에 적용하려 했으며, 동시에 無慾의 心情으로 자연에서 逍遙하며 유유자적하게 天命을 다하는 莊子의 人生觀을 배움으로써 세속적인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 했다. 즉 「신기질은 도연명으로부터 현실생활에서의 行爲典範을 얻었으며, 老莊思想에서 현실문제의 이성적 해답을 얻었다」³⁾ 할 수 있다.

Ⅲ. 稼軒詞 中の 歸隱思想

1. 적극적 의미의 귀은사상

적극적 의미의 귀은사상은 서언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田園에 귀의한 뒤

3) 熊開發 <從辛棄疾의 儒、道、釋傾向看他的人格特徵>: 「從陶淵明那裡, 辛棄疾得到的是一種現實生活的行爲典範, 而老莊思想給予他的, 則主要是對現實問題的理性解答。」(何湘鑾 <稼軒信州詞研究> 東吳大學 碩士論文 1993年, 96쪽에서 再引用)

세속의 功名을 완전히 잊고 자연 속에서 소요하며 平靜自足한 심정으로 은거생활에 안주하지 못하고, 은거생활 중에도 失意와 좌절, 울분과 번뇌, 懷才不遇의 감개 등을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主和派 權奸들의 배척으로 억울하게 落職되어 자신의 壯志와 포부를 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長期間 은퇴생활을 하게 된 신기질이 곧 바로 현실을 완전히 망각하거나 一生一代의 소원인 중원회복의 열망을 완전히 포기하고 은거지에서 유유자적하며 진정으로 전원생활을 즐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신기질은 귀은한 후에 한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국가 민족이 참극을 당한 데 대한 비통, 중원회복에 대한 강렬한 소망, 盡忠報國의 氣概, 일시적인 安逸만을 탐하는 主和派 인사들에 대한 질책과 분개 등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출했다.

이러한 적극적 귀은사상은 신기질 은거 시기 중 全 期間에 걸쳐 많은 작품에서 나타나지만 본의 아닌 낙직은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前인 歸隱初期의 작품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며,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은근하고 완곡하게 표현된다. 1182년 帶湖에 은거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지은 <水調歌頭·嚴子文同傳安道和前韻, 因再和韻之>(寄我五雲字) 下片을 예로 들면:

短燈檠,	짧은 등잔걸이,
長劍斂,	긴 칼에는,
欲生苔,	이끼 끼려하고,
雕弓掛壁無用,	彫刻 裝飾한 활은 쓸모 없이 벽에 걸려 있는데,
照影落清杯,	맑은 술잔엔 그림자 드리우네,
多病關心藥裏,	병이 많아 약물에 관심 가지며,
小摘親鉏菜甲,	직접 김매면서 채소 싹도 따야하니,
老子政須哀,	이 늙은이 신세가 정말로 애처롭구나,
夜雨北窗竹,	밤비 北窗 대나무에 내리니,
更倩野人栽,	일꾼 청해 더 심어야지.

友人 嚴子文과 傳安道에게 和答하여 지은 작품으로 자신의 居處環境과 生活情景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壯志를 펼치지 못하고 草野에 묻혀사는 悲哀를 나타냈는데, '긴 칼에는 이끼가 끼고, 활은 쓸모 없이 벽에 걸려 있

고, 병들어 약 먹는데 신경 쓰면서 채소를 가꾼다는 표현에서 전원에서의 은거생활에 平靜한 심정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盡忠報國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懷才不遇의 感慨를 표출했다.

신기질은 은거생활을 시작하면서 혼탁한 사회와 관직을 결연히 등지고 귀은한 陶淵明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고 존경하게 되어 그의 詞作에서 도연명의 평정한 은거생활과 혼탁한 관직사회를 대비시켜 자신의 감회를 나타냄으로써 적극적 귀은사상을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水調歌頭·再用韻答李子永提幹〉

君莫賦幽憤，	그대여 〈幽憤詩〉 ⁴⁾ 를 읊지 마소，
一語試相關：	한마디로 그대 마음 풀어 주리니，
長安車馬道上，	장안 마차길 위，
平地起崔嵬，	평지에도 높은 산이 솟는다네，
我愧淵明久矣，	내가 연명을 부끄러워 한지 오래지만，
猶借此翁澗洗，	아직도 그분의 힘을 빌어 부끄러움 씻어 보려고，
素壁寫歸來，	하얀 벽에 〈歸去來辭〉를 써보았네，
斜日透虛隙，	석양 빛 작은 틈새로 들어 오니，
一線萬飛埃，	실 같은 햇살 위로 수 많은 티끌 날리네，

斷吾生，	내 생을 다하리라，
左持蟹，	왼 손에는 게를 잡고，
右持杯，	오른 손엔 술잔 들고서，
買山自種雲樹，	산을 사서 산 위에는 나무 심고，
山下斷煙萊，	산 아래는 잡초 베고 황무지 개간하리라，
百鍊都成繞指，	백번 달군 강철도 손가락 감을 만큼 물러졌고，
萬事直須稱好，	만사를 그저 좋다고 하니，
人世幾興臺，	세상에서 어려움을 몇 차례나 겪었길래，
劉郎更堪笑，	우습게도 劉郎(劉禹錫)은，
剛賦看花回，	곧 바로 〈看花回〉詩 ⁵⁾ 를 지었다네，

4) 魏 詩人 嵇康이 무고로 투옥된 뒤 獄中에서 지었다는 〈幽憤詩〉.

5) 劉禹錫의 〈遊玄都觀詠看花君子詩〉. 유우석이 지방으로 좌천됐다가 10년만에 중앙으로 돌아와 이 시를 지었는데, 이 詩로 인하여 무고를 당해 다시 지방으로 좌천 당함. 邵廣銘 <稼軒詞編年箋注>, 114쪽·18쪽 箋注 참조.

이 작품도 신기질이 1182년 帶湖에서 지은 은퇴 초기의 詞作으로 上片은 歸隱의 이유를 大路나 평지에 높은 산이 우뚝 솟듯이 世上 風波가 험하고, 수 많은 띠끌 날리는 부패하고 혼탁한 사회 때문이라 표현하면서 도연명처럼 과감하게 세속을 벗어나 귀은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 하며 일반 衆人들과 다른 도연명의 고결함을 찬미했고, 下片은 한가롭게 술마시며 나무 심고 황무지 개간하며 살고 싶다는 귀은의 의지를 피력한 듯 하지만, 세상풍파와 혼탁한 사회 때문에 억울하게 낙직되어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펼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典故도 인용하면서 완곡하게 표출했다 할 수 있다.

2. 소극적 의미의 귀은사상

소극적 의미의 귀은사상은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 의미의 귀은사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田園에 귀은한 뒤 세속의 시름을 완전히 잊고 자유롭고 구속이 없는 자연 속에서 소요하며 한가롭고 평온한 은거생활에 自足하며 安貧樂道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국심과 공명심으로 가득 찬 신기질에 있어서 이러한 소극적인 면은 의외라 할 수 있지만, 長期間의 田園生活 중에 도연명을 흠모하게 되어 그의 생활태도를 배우려 했고, 老莊의 인생관을 체득하게 되어 번뇌를 잊고 자연과 벗하며 세속을 초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平靜을 얻고 自足하며 은거생활을 즐기기도 했다.

이러한 소극적 귀은사상은 억울한 落職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前인 歸隱 初期의 작품보다는 자연과 벗하는 일정 기간의 전원생활을 경험한 뒤의 詞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혹은 산수와 벗하며 安分自足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혹은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표출하며, 혹은 세속을 초월한 달관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제 稼軒의 작품 몇 首를 예로 들면:

<鷓鴣天·博山寺作>

不向長安路上行,	장안 길로는 향하지 않고, (부귀공명을 구하지 않고)
却教山寺厭逢迎,	오히려 산사가 (빈번한 방문에) 나의 영접에 싫증낼 정도라네.
味無味處求吾樂,	無味를 眞味로 여기며 나의 즐거움 구하고,
材不材間過此生,	유능한 者와 무능한 者 사이에서 평범하게 내 생을 보내리라.
寧作我,	차라리 본래의 내 모습을 유지하지
豈其卿,	어찌 저 公卿에 의탁하여 명성을 구하겠는가?
人間走遍却歸耕,	인간세상 두루 다니다가 결국 귀은하여 밭을가니,
一松一竹眞朋友,	소나무 하나, 대나무 하나가 진정한 친구요,
山鳥山花好兄弟,	산새 산꽃은 정말 좋은 형제라오.

淳熙 14년(1187年) 帶湖에 落職隱居하여 약 7年間 전원생활을 한 뒤의 작품으로 全篇에 걸쳐 귀은의 결심에서 부터 귀은의 사상적 기초, 귀은의 이유, 귀은의 즐거움 등을 묘사했는데, 「味無味」句는 <老子>에서, 「材不材」句는 <莊子·山木篇>에서 用典을 취한 것으로 작자가 老莊사상의 영향을 받아 無慾의 심정으로 유유자적하며 천명을 다하려 했음을 알 수 있고, 마지막 「一松一竹」二句에서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벗하며 지내는 전원 생활에 대해 자족하는 작가의 소극적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또 한 작품을 예로 들면:

<行香子·博山戲呈趙昌甫、韓仲止。>

少日嘗聞:	어렸을 적에 듣기를:
「富不如貧,	「富는 가난보다 못하고,
貴不如賤者長存。」	귀한 者는 천한 者보다 오래 못 산다고 하네。」
由來至樂,	예로부터 지극한 즐거움은,
總屬閒人,	언제나 한가한 사람에게 속했다지.
且飲瓢泉,	잠시 瓢泉 물 마시고,
弄秋水,	秋水堂에서 놀다가,

看停雲.

停雲堂⁶⁾에서 구경해야지.

歲晚情親.

나이 드니 정은 더욱 친밀해지고.

老語彌眞.

노인네 말은 더욱 더 진실된다지.

記前時勸我慙:

전에 내게 온근히 권하던 말 기억이 나네:

都休滯酒.

"술 마시고 힘들어 말고.

也莫論文.

글도 논하지 말고.

把相牛經.

相牛經⁷⁾과

種魚法.

고기 기르는 방법이나

教兒孫.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던.

이 작품은 2차 탄핵 후 표천 은거시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체의 榮愁과 浮沈, 울분과 실의를 잊고 담담하고 평온한 심경으로 安分知足하며 노년을 보내려는 작자의 심경을 엿볼 수 있다. 신기질의 이러한 소극적 귀은사상은 장기간의 은퇴생활 중에 체득한 莊子의 인생관과 도연명의 生活情趣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由來至樂, 總屬閒人」句에서 수많은 마음 속의 갈등과 번민을 겪은 생활 체험의 결과로 얻어진 자족의 심정을 느낄 수 있으며, 全篇에서 은거생활 중에 비록 진정한 정신적 해탈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모든 부귀공명을 잊고 한가롭게 전원생활에 적응하며 安貧樂道의 심정으로 노년을 보내려는 작자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IV. 結語

애국사상이 무철했던 稼軒 辛棄疾의 생애에서 20餘年 間의 타외에 의한 은거생활은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할 수 없었던 암울한 시기로서 가현은 한적한 田園에서 현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새로운 은거생활에 쉽게 적응

6) 秋水堂과 같이 瓢泉 은거지에 있는 중요 건축물 중의 하나로 鉛山縣 期思村 山上에 위치하고 주위에 松竹이 두루 심어져 있어 신기질 晩年에 휴식처로 이용했다 함. 劉斯奮 <辛棄疾詞選>, 109쪽·112쪽 참조.

7) 書名. <唐書藝文志>에 실려있는 南威의 <相牛經>.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은퇴초기의 많은 작품에서 전원생활의 한적함을 묘사하거나 빼어난 주변환경을 묘사하면서 본의 아닌 은거생활에 대한 실의와 울분, 懷才不遇의 감개 등을 은근하게 기탁한 적극적 귀은사상을 표현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자연 속에서 소요하며 한적한 전원생활에 적응하고, 陶淵明을 흠모하여 그의 생활태도를 배우고, 莊子의 인생관에서 정신적 위안을 받으면서 수려한 山水풍경과 한적한 전원생활을 묘사하거나 安分知足하는 심정을 묘사한 소극적 귀은사상이 표현된 작품도 나타난다.

물론 신기질이 中年과 老年에 걸쳐 은퇴생활을 하며 도연명과 장자에 심취하고 자연 속에 은거하여 유유자적한 생활, 한가한 전원생활을 묘사한 작품을 많이 써냈지만, 그의 憂國憤世、懷才不遇의 감정과 중원회복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애국사상은 수시로 작품에 반영되고 있어 신기질을 애국사인의 대표라고 일컫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며, 또 嘉泰 3년(1203)에 64세의 高齡으로 조정의 부름에 응하여 다시 出仕한 것을 보면 그의 功名에 대한 의지는 末年까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귀은사상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면이 主가 되고 소극적인 면은 副次的이라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鄧廣銘 <稼軒詞編年箋注>, 臺北, 華正書局, 1989
 朱德才 <辛棄疾詞選>,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93
 劉斯奮 <辛棄疾詞選>, 香港, 三聯書店, 1991
 黃葵仁 <辛棄疾詞精華>,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3
 李東鄉 <稼軒辛棄疾詞研究>, 서울, 通文館, 1985
 薛祥生 <稼軒詞選注>, 臺北, 崧高書社, 1985
 張淑瓊 <辛棄疾>〔唐宋詞新賞第11卷〕, 臺北, 地球出版社, 1990
 常國武 <辛稼軒詞集導讀>, 成都, 巴蜀書社, 1988
 賀新輝 <宋詞鑑賞辭典>,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87
 何湘瑩 <稼軒信州詞研究>, 東吳大學 碩士論文, 1993

鄭宏華〈稼軒詞與莊子〉：《四川師院學報》1985年 2期

李博、曾廣開〈論莊子對稼軒詞的影響〉：《鄭州大學學報》1989年 1期

袁行勛〈辛詞與陶詩〉：《文學遺產》1992年 1期

項雅琴〈拙剛爲柔 管氣內轉—辛棄疾婉約詞的特色〉：《雲南民族學院學報》1986年 1期